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종국 110-724 서울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전화: 723-5303 / 팩스: 723-5364
천안 호텔: Pspd, 나우라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이수효 : 723-5303)
제 목 미국 WJE사의 '부실시공조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件
날 짜 1997. 7. 29. (총 4 쪽)

보 도 자 료

미국 WJE사의 '부실시공조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건설교통부 및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7월 29일(화) 건설교통부 및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미국 WJE사가 실시한 경부고속철 '부실공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2. 최근 김한중 고속철도공단 전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미국 안전진단 감리회사 WJE사가 실시한 경부고속철 '부실시공조사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해 온 사실을 폭로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현 정부의 최대 국정사업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안전성에 역점을 두어서 진행되어야 할 경부고속철 사업은 그동안 총체적 부실로 인한 안전문제와 심수원에 달하는 공사 추가비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고, 국가경제의 동맥으로서 기능해야 할 경부고속철의 부실상태와 내용에 관하여 국민들은 온전히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부실시공결과를 확인하고, 관계당국에게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원인규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 청구서 1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번지 인곡빌딩 총 전화: 723-5303 / 팩스: 723-5054
천안만화빌: PSPD, 나우누리, 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맑은사회 97-0702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김형완 권력감시센터 국장, 이수효 간사, 723-5303)
제 목 경부고속철도 '부실시공조사보고서'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
날 짜 1997. 7. 29. (총3쪽)

미국 WJE사가 실시한 경부고속철 '부실공사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사공단이 경부고속철 안전도와 관련하여 미국 WJE사가 실시한 부실시공보고서결과 자료를 별지와 같이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최근 김한중 고속철도공단 전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미국의 안전진단 감리회사 WJE 사가 실시한 경부고속철 '부실시공조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현 정권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안전성에 역점을 두어서 진행되어야 할 경부고속철 사업이 부실공사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없이 당국의 적당주의와 무사안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경부고속철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불식하고, 건설한 고속철의 건설을 위하여 WJE 사의 '부실시공보고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번지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3)
대표자 공동대표 김창국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미국 안전진단 전문회사 WJE사의 「경부고속철 부설시공보고서」 및 부속서류

청구의 목적

1.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맑은사회만들기,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작은권리찾기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맑은사회만들기운동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를 근절하고 맑은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의 안전도와 관련해 미국 WJE사(미국 구조물 전문안전진단회사)에 의뢰하여 경부고속철의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WJE사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우리의 경부고속철 건설의 부실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전이사장 김한중씨는 WJE사의 조사내용은 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는데 해당관계자들의 압력으로 부분적으로 은폐,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JE사의 샘플조사 대상은 1천 12개소였는데 점검결과 70%인 7백 15곳 가량이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됐으나, 실제로는 조사대상 1개소당 평균 3~4개 이상 하자가 나타나 실제 부설 전수는 3천여권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4.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그동안 총체적 부실로 인한 안전문제와 심수조원에 달하는 부설공사 추가비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주어 왔습니다. 만일 위 김한중 전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대될 것임은 물론 국가장래에

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실한 공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고, 국가경제의 동맥으로서 기능하여야 할 경부고속철의 부실상태와 내용에 관해서 국민들은 온전히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광범하게 일고 있는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건실한 고속철의 건설을 위해서도 위 WJE사의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조사 결과자료는 사실 그대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은 자신의 안전과 권익에 대한 위협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이와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개방법

미국 WJE사의 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를 받고자 함

1997년 7월 29일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창국

※첨부자료 : 참여연대 제3회 정기총회·2주년 창립기념식 자료집

건설교통부장관 귀하